

인구 구조의 변화와 농식품 소비패턴

소비자 지향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식품 소비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불고 있는 건강한 삶 및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 농식품의 생산이 중요해지는 현상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농식품 소비는 인구구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 구조는 그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농식품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인구구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1인 가구의 확대가 그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농식품 소비에도 영향

흔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이 될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90년에 5.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05년 말에는 9.5%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속도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농식품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실버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버 푸드는 병원의 환자식과 같았던 기존의 노인식과 달리 편리성, 질감, 맛, 영양, 포장, 분위기까지 노인들의 취향에 맞게 개발된 식품이다. 이는 다른 상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식품 분



야에서도 실버마켓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독신자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1인 가구는 317만 명이고, 20대 이상 인구 중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남녀를 포함할 때 독신자는 6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조기 독립, 만혼, 이혼은 물론 기러기 가족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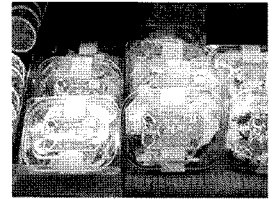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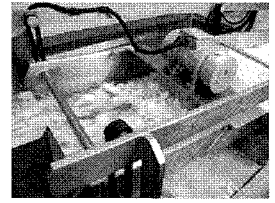
농식품 소비단위의 소량화

싱글족 증가로 농식품 소비단위가 소량화되고 있다. 현재도 농식품의 소포장호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싱글족의 증가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식품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싱글족이나 맞벌이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집에서 조리하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미리 조리된 음식이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데우기만 해서 먹는 간편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적 변화와 소비패턴을 볼 때 앞으로 농식품에서도 간편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선편이식품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신선편이식품이란 청과물을 산지에서 세척, 반가공해서 소비자들이 먹기 용이하게 만든 상품으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깐 마늘, 깐 파, 세척 당근, 세척 무, 채소 샐러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앞으로 채소는 물론 과일도 다양한 신선편이식품이 개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글족이나 맞벌이 부부는 과일을 깎아 먹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령화 추세에 발맞춰 이가 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가공 식품과 건강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농산물도 원물상태가 아니라 산지에서 다양하게 세척, 가공, 포장된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



* 본 칼럼1은 한국농어민신문 2008년 4월 7일자, 칼럼2는 농민신문 2007년 12월 24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